

# 태평양전쟁기 재미한인사회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

1. 머리말
2. 태평양전쟁기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결성과 활동
3.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대립과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분열
4. 맺음말

## 1. 머리말

1941년 재미한인사회에서 최대 연합 단체인 ‘在美韓族聯合委員會’가 발족되었다.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이하 ‘연합회’로 약칭)는 태평양전쟁기에 중경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지지하면서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는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국민회와 동지회를 포함해서 총 9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그 중에서 국민회와 동지회 계열이 아닌 단체로는 ‘중한민중동맹단’과 ‘조선의용대후원회연합회’가 있었다.

이 중 ‘조선의용대후원회연합회’는 1942년 6월에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로 개편되는데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진보 한인단체였다. 뚜렷한 족적이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은 한길수 중심의 중한민중동맹단과 달리, 이들은 기관지도 발행하고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1940년대 미주 한인사회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단체였다.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이하 ‘민혁명당 미주지부’ 또는 ‘미주지부’로 약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적은 편이다. 먼저 최기영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前身인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의 결성과정과 활동을 그 기관지였던 『의용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1942년에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로 개편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고 보았다.<sup>1</sup> 고정휴는 1920년대 이후 미주와 유럽지역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결성부터 분화와 침체까지의 과정을 재미한족연합회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폈다.<sup>2</sup> 강만길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의 성립과 조직의 성격, 활동을 주로 중국에서 전개된 무력투쟁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와 『독립』신문의 발행을 중심으로 보았다.<sup>3</sup> 이 외에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개별연구들이 있어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의 세부내

<sup>1</sup> 최기영, 1999, 「조선의용대와 미주한인사회-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1

<sup>2</sup> 고정휴, 2009,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sup>3</sup> 강만길, 2003, 「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의 활동」, 『조선민족혁명당 통일전선』 증보판, 역사비평사.

용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별인물 연구인만큼 단체의 전체적인 활동 모습을 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sup>4</sup>

선행연구들은 주로 1944년 말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가 분열을 맞이한 이후 활동이나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주로 재미한족연합회나 국민회·동지회의 관계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민혁명당 미주지부를 살피고 있는데 반대로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시각에서 재미한인사회를 살펴보고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재미한인사회를 재미한족연합위원회나 이승만·동지회 위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해방 후 미주 한인사회에서의 좌익 계열의 활동이나 영향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때의 민혁명당 미주지부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해방전후 진보 운동 내지 좌익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초작업으로서, 태평양전쟁기 대표적인 진보단체였던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의 활동과 사상·이념 등을 정리하고 분열과 해방 직전의 활동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조선민족혁명당 후원단체는 미주지부와 하와이지부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정치적 활동 및 주요 의사결정들은 미주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미주지부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기관지인 『독립』을 주요 사료로 활용하였으며 그 외에 미주에서 발행된 신문자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의록, 등을 검토했다.

## 2. 태평양전쟁기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의 결성과 활동

1941년 미주한인사회에서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가 중심이 되어 在美韓族聯合委員會(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UKC)가 발족되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주사회의 9개 단체가 합동하여 이룬 연합단체였는데, 조선의용대후원회 연합회(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前身)도 그 중 하나였다. 조선의용대후원회는 국민회나 동지회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연혁도 짧고 회원수도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결성된지 2년 만에 해외한족대회에 참여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회원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미주한인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무시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sup>5</sup>

<sup>4</sup> 최기영, 2004, 「1930-40년대 미주 기독교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와 역사』 20; 박종연, 2012, 「재미한인 황사용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윤종문, 2013, 「항일투쟁기 광림대의 재미독립운동」, 『역사연구』 24; Eun Sik Yang, *Korean Revolutionary Nationalism in America: Kim Kang and the Student Circle, 1938-1956*,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up>5</sup> 그러나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국민회와 동지회는 각각 4명의 위원을, 민혁명당 미주지부를 포함한 나머지 단체들은 1명의 위원만을 파견할 수 있었기에 연합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랐다. 연합회 내부에서는 위원 수만큼 국민회와 동지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이후 1942년 5월 18일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자 조선의용대후원회는 ‘조선의용대 본부의 지시와 혁명 운동의 실행을 한 단계 높이고자’<sup>6</sup> 1942년 6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로 개편하였다.<sup>7</sup>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지닌 단체로<sup>8</sup> 그 동안 보수적이었던 재미한인사회에서 진보적 정치단체가 등장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단체였다. 재미한인사회에서 민혁명 미주지부와 같은 진보적인 단체가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sup>9</sup> 변준호<sup>10</sup>, 이경선과 같은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1930년대부터 한인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기반을 다져왔던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sup>11</sup>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의 주요 사상과 당의 기초는 강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미주총지부의 위원장을 맡았고 가장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변준호의 글 「조선민족혁명당과 우리의 해방운동」에서는 민혁명 미주지부의 '기본강령'과 '투쟁강령'을 조항 하나하나씩 소개하고 상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sup>12</sup>

#### 기본강령

1.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

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 
- <sup>6</sup> 『독립』 1946년 9월 25일, 김혜란, 「중일전쟁 이후 재미동포해방운동의 회고」
  - <sup>7</sup> 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1942년 6월, 1942년 10월, 1943년 1월 등의 주장이 있다. 김원용의 『재미한인50년사』에는 1943년 1월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김혜란의 회고를 따랐다. 김혜란, 앞의 글.
  - <sup>8</sup> 『독립』 1944년 3월 1일; 1944년 3월 8일 변준호, 「조선민족혁명당 우리의 해방운동」; 1946년 9월 25일 김혜란, 「중일전쟁 이후 재미동포해방운동의 회고」
  - <sup>9</sup> 고정휴는 미주에 진보단체가 등장한 요인을 대공황 이후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청년층의 출현, 중일전쟁 후 외교와 선전만으로는 독립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의 등장, 국민회와 동지회 등 기성단체의 주도권 다툼에 대한 교민사회의 불만, 戰後 한국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관 모색 등으로 정리했다. 고정휴, 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208쪽.
  - <sup>10</sup> 변준호는 1895년생으로 중국 남경을 거쳐 1917년에 도미했다. 미국에서 수학한 그는 1930년대부터 미국 내 한인진보단체에서 활동했고, 직접 단체를 결성하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진보적 인물로 인식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45년에 OSS의 군사작전에 참여했다.
  - <sup>11</sup> 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전신단체인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 및 ‘조선의용대후원회’에 대해서는 방선주, 1989, 「金浩哲과 社會科學研究會」,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최기영, 2003, 「조선의용대와 미주한인사회-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를 중심으로」,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2003; 고정휴, 2009, 「1930년대 미주에서의 한인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배경과 초기 특징에 대한 고찰-시카고의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선우학원·노길남·윤길상, 2009, 『미주동포 민족운동 100년사』, 일월서각 참고
  - <sup>12</sup> 『독립』 1944년 3월 1일 ; 1944년 3월 8일, 변준호, 「조선민족혁명당 우리의 해방운동」

2. 독립을 회복한 후 1년 내에 국민대회를 소집하고 일반인민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을 제정할 것
3. 독립 후 1년 내로 일인의 제국주의자 매국적 일인 관공리의 공·사유재산을 정부에서 압수할 것
4. 일절 공업과 농업조합을 장려하고, 반파시스트 민중으로 더불어 연락하는 모든 상공업을 보호 장려할 것
5. 징병제를 실시하고, 민중의 안녕과 국가적 독립을 확보함
6.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것
7. 여자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권리와 지위는 남자와 동등할 것
8.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장려하고 아동의 노동을 금지함
9. 민중의 언론·출판·집회결사 사상의 자유를 확보함
10. 일반교육은 국가경비로 실행함
11. 조선의 고유문화를 선포키 위하여 연구부를 두어 장려함
12. 세계 반침략 국가와 민족으로 더불어 연합하여 자유평등의 세계를 건설하도록 노력할 것

#### 투쟁강령

1. 해내 해외에 있는 혁명당과 민중기관을 연합, 혹은 합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혁명단체 혹은 기관을 토대로 한 임시정부의 기구를 일층 공고히 하여 좀 더 큰 세력과 영향으로 전민족적 독립 운동을 지도하여 그로 좇아 최단기간 내에 임시정부 승인을 여부 없이 승인을 받게 하며 휴전 후 연합국으로 우리 독립을 여부 없이 승인하도록 할 것
3. 연합국 공세에 일치협력하며, 우리민족의 독립전쟁을 대규모화 하기 위하여 해내 해외의 일절 무장 세력을 통일할 것
4. 내지혁명 기관조직과 민중 훈련을 일층 긴밀히 하여 전민중이 봉기하게 할 것을 준비할 것
5. 해외동포의 생활방도를 개선하며 권리를 보호하고, 혁명을 위한 훈련과 조직을 장려할 것
6. 정의를 위한 반파시스트 전쟁을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중일전쟁에 참가할 것

강령에서 알 수 있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목적과 사상은 ①반제국주의·반파시즘, ②임시정부 중심의 통일된 독립운동 지향, ③ 무장투쟁 독립운동 강조, ④ 계급평등, 사회주의적 국가건설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이들은 해방 후 조국건설의 이상도 드러냈는데 반계급적·민족해방적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세계대세에 순응 병진하여 민족적 완전독립과 계급적 완전해방을 포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들의 이상이었던 것이다.<sup>13</sup>

<sup>13</sup> 『독립』 1943년 11월 10일, 이경선, 「조선혁명의 성질」

그렇다면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재미한인50년사』를 집필한 김원용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에 대해 “설립 이래 아무 활동이 없이 신문 발행에 전력을 다하였고, 당원은 40명에 불과하였다.”고 설명했다.<sup>14</sup> 그러나 실제로 민혁명 미주지부는 기관지인 『독립』신문 발행 외에도 군자금을 모집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선전활동도 펼쳤다.

### (1) 언론 활동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활동으로는 먼저 언론활동을 들 수 있다. 기관지격인 『독립』신문의 발행이 그것으로, 1943년 10월 민혁명 미주지부의 당원이었던 변준호를 비롯하여 김성권, 이득환, 최능익, 김강, 이경선, 선우학원 등 73명의 진보적 인사들은 박상엽, 백일규 등 재미한인사회의 중립적 인사들을 모아 결성 초기 발행했던 『민족전선』이라는 소규모를 기관지를 확대 개편하여<sup>15</sup> 『독립』창간호를 발행했다. 『독립』은 격주간지로 시작했으나, 차츰 주간지가 되었고 지면은 국문란 3면과 영문란 1면이었다. 발행부수는 1944년 경우 매호 1,500호 정도였다.

『독립』의 발기문에 따르면 1940년대의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인식하고 우리 민족도 세계 대세를 이용할만한 역량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을 자각하며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라고 보았다. 즉, 언론활동도 독립운동의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민혁명 미주지부의 활동과 사상을 드러내고 홍보함과 동시에 독립운동 방략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독립』은 불편부당의 원칙을 강조했으며 언론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잃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민혁명 미주지부의 주요인물들의 목소리와 주장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했으며 민혁명 미주지부의 활동을 날날이 전달했다. 민혁명 미주지부의 임원들과, 『독립』의 임원들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미주지부는 『독립』의 발간과 지면 이용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주장을 재미한인사회에 내보일 수 있었다.<sup>16</sup>

### (2) 군사운동 강조와 군자금 모집 활동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지한 독립운동 방략은 군사운동이었다. 군사적 역량이 자주권을 보여준다고 여긴 이들은 독립을 달성하고 인정받으려면 직접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주에서 군사운동을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대신 군사운동비 혹은 후원금을 모집해 군사활동을 벌이는 임시

<sup>14</sup> 김원용 저, 손보기 엮, 2004, 『재미한인50년사』, 해안, 169쪽.

<sup>15</sup> 『독립』 1943년 10월 27일, 「독립신문사가 탄생하기까지」; 『독립』 1946년 10월 23일, 김혜란, 「중일전쟁 이후 재미동포 해방운동의 회고」

<sup>16</sup> 변준호의 기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립』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기관지로서 인식되었다. 『독립』 1944년 3월 8일 「조선민족혁명당과 우리의 해방운동」

정부에 보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미포에 있는 우리는 지금부터는 군사운동비를 걸어서 일꾼이라도 어리석은 외교사업에 쓰지 말고 임시정부 군사비로 보낼 것이며, 둘째는 임시정부에서는 군사운동을 무슨 모양이로든지 해서 한국 강토 가까운 곳에서 제2전선을 열어야 할 것이며, 만일 완전한 제2전선을 열지 못하겠다면 비밀운동을 하여 내지 안에 <사보타지> 일이라도 시작하여서 세상에 우리들의 적극적 광복 운동을 널리 광포할 것이다.<sup>17</sup>

위의 기사처럼 민혁명 미주지부는 임시정부를 후원하여 한국 근처에서 군사운동을 벌이고, 혹은 비밀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독립운동 방략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사비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군사활동 책임자에게 전송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독립전선의 통일, 임시정부 봉대, 재정 수합과 통일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이었고, 민혁명 미주지부도 거기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독자적인 군자금 모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연합회의 군자금 모집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여겼고, 군사운동을 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군자금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민혁명 미주지부는 『독립』을 통해 군자금 모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독자들과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권유했다. 행사적으로 진행되던 군자금 모집 활동은<sup>18</sup> '광복군9개준승'이 폐지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즉 1944년 9월에 민혁명 미주지부가 발의하여 송헌주, 조극, 장세운, 김두현, 신두식, 김강, 이창희, 장기형, 이경선 등 뜻이 맞는 인사들이 모여 '군사운동촉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규정을 만드는 등 조직적이고 실질적으로 군사운동비 모집에 힘쓰게 된 것이다.<sup>19</sup>

문제의 9개준승도 폐지된 이 기회에 하루바빠 군사운동을 강화함은 시기에 적절한 일이오 되 미, 포 한인으로 군사운동비를 수합하여 이 운동을 원조함은 가장 필요긴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의 발의로 민족혁명당 인사들과 독립신문 관계 인사들과 유지 인사들이 공동으로 회합하여 <군사운동촉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재래의 모든 폐단을 일소하는 동시에 이 아래 몇 가지를 규정하고 군사운동비를 수합하여 한 푼도 축 내지 않고 임시정부 군무부에 보내어 군사운동을 원조하려 하오니 일반 동포는 동심 합력하기를 바라나이다.

<sup>17</sup> 『독립』 1943년 11월 10일 「참된 독립운동은 무엇인가」

<sup>18</sup> 『독립』 1944년 2월 3일 「군수금 5천원 수합」

<sup>19</sup> 『독립』 1944년 9월 27일, 「군사운동비 모집에 대하여」. 이후 '규정'의 세부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이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정

- 一. 본 위원회는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단순히 군자금을 수합하여 군사운동을 원조함에 있고 정치적 성질이 없음
- 二. 군자금 수합 방법은 일시금제와 레연금제로 정함
- 三. 군자금은 우리 민중이 자발적으로 군사운동 원조를 목적하고 의연할 것이므로 임시정부 군무부에 직접 보내기로 함
- 四. 수합된 돈은 한 푼도 축내지 않고 매월 1차씩 보내기로 함.
- 五. 위원부 경비는 따로 수합하여 쓰기로 함.
- 六. 군자금 의연한 분의 서명과 금액 등은 임시정부 군무부에 통지하여 등록하게 함
- 七. 본 위원부의 일반 활동기사와 군자금 영수와 원동 소식 등은 각 신문에 발표하기로 함

그리고 민혁명당 미주지부는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군사운동비를 임시정부 군무부로 송금했다.<sup>20</sup> 1944년에는 아예 임정이 아니라 광복군 제1지대로 직접 보낸 적도 있다.<sup>21</sup> 다만 미주지부가 두 개의 파로 분열하게 된 이후에는 군자금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반제국주의·사회주의 이념 선전

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진보적인 단체로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그리고 보수적이었던 재미한인사회에서 진보적인 이념을 드러내고 주장한 것은 당시 재미한인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움직임에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본래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재미한인사회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던 인물들이 모여 만든 단체였고, 1930년대 ‘사회과학연구회’와 같은 진보단체를 이어 나간 집합체였다. 따라서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사회주의·반제국주의 성격은 미주 한인사회 내 진보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셈이었다.

역사의 진보를 계급투쟁으로 인식한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중요 이념으로 삼았으며, 제국주의와 파시스트에 반대함을 분명히 주장했다. 앞서 살펴본 강령에서도 이들의 지향점과 국가관·사회관을 알 수 있으며, 기관지 격인 『독립』의 지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하는 바를 대중에게 전달했다. 『독립』에 사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독립 후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독립운동이 어떤 사상 위에 서 있는지를 종종 역설했고, <사회과학>이라

<sup>20</sup> 『독립』 1944년 12월 6일, 「군사운동비 모집」

<sup>21</sup> 『독립』 1944년 9월 27일, 「군사운동비 모집에 대하여」. 이때부터 민혁명당 미주지부는 기관지 『독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사운동비를 모집했다.

는 란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민족·계급 투쟁사와 세계 정황을 소개했다.<sup>22</sup>

#### (4) 재미한족연합회 참가 활동

1941년 1월 하와이에서 해외한족대회가 열린 후 재미한인사회의 연합과 결집의 필요성을 절감한 재미한인사회 주요단체들은 1942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당시는 조선의용대후원회)는 이 연합회의 회원단체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연합회가 주최하는 회의 및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재미한족연합회는 재미한인들의 여러 단체와 인물, 주의주장을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해방 후 국가건설에 일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주요 회의와 전체대회 때마다 각 단체가 입장 차이로 난항이 빠지곤 했다. 가장 큰 갈등은 국민회와 동지회 간에 일어났으며, 제3자적 입장이었던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이념이나 주의사상이 큰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다만 민혁명당 미주지부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연합회의 합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에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바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으며, 뜻이 잘 맞았던 학생회와 함께 연합회 탈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연합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주미외교위원부 개조 문제를 두고도 민혁명당 미주지부는 탈퇴를 선언했지만 당이 분열을 맞이하여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된 이후에는 다시 연합회와 행동을 같이 했다.

### 3.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대립과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분열

#### (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대립과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비판

1941년 발족된 미주 최대 한인 단체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이하 연합회)는 미주 한인사회의 재정과 외교활동에서 통일을 기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결성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외교활동을 할 주미외교위원부를 설치했고, 독립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연합회의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 외교활동과 독립금 모집이라는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을 두고 연합회 내에서 갈등과 이견이 빈번했다.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도 이 두 문제를 두고 연합회 주축인 국민회·동지회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민족혁명당 미주지부가 연합회 참여에서 가장 마찰을 빚은 부분은 ① 임시정부 재정 지원 문제와 ② 주미외교위원부 설치문제였다.

먼저 임시정부 재정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중경 임시정부 봉대라는 기치를 초기부터 강조했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군사운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교운동보다 군사운동이 독립에 더 필요하다는 것이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주장이었

<sup>22</sup> 『독립』 1944년 3월 8일 「조선민족혁명당과 우리의 해방운동」; 1944년 9월 6일 「조선민족해방과 독립신문의 임무」



다.

그런데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독립금과 군사운동금 등 각종 재정모집은 활발히 시행하였으나 임정이나 주미외교위원부에 송금해야 할 지출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임정에 보내져야 할 자금은 해가 지날수록 줄거나 중단되었고, 모금한 군사운동금도 바로 임정으로 보내지 않았다. 바로 송금하지 않은 것은 군사운동금은 군사운동에만 써야 한다는 원칙 때문으로,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직접적인 군사운동을 전개할 때까지 은행에 적립하겠다는 것이었다.<sup>23</sup> 줄곧 누구보다 군사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있는 독립군을 재정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혁명당 미주지부에게 이러한 연합회의 결정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 건이었다.<sup>24</sup>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주미외교위원부 설치를 두고 임시정부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1943년 12월 20일 외교위원부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의하고 의사부 사무소를 워싱턴에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으며, 1944년 6월에는 독자적인 외교사무소 역할을 할 워싱턴사무소를 설치했다.

워싱턴사무소 설치안을 논의했던 1944년 3월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3차대표회의에서 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사무소 설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시했다. 외교기관이 이미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워싱턴사무소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워싱턴사무소에 배치할 인물들이 신용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아예 연합회가 설치하려는 워싱턴사무소는 폐하고 외교운동은 임시정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5</sup> 그러나 사무소 설치를 주장하는 국민회 세력이 강했던 연합회는 결국 워싱턴사무소를 설치했고<sup>26</sup>, 민혁명당 미주지부는 북미유학생총회와 함께 연합회에서 탈퇴했다.<sup>27</sup>

연합회에서 탈퇴를 감행한 이유는 재미한족연합회가 출범 당시 임시정부 봉대를 내세웠으면서도 주미외교부와 대립적인 외교기관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서 필요한 것은 군사운동인데 외교에만 매달리는 연합회의 태도에도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sup>28</sup>

<sup>23</sup> 자세한 연합회의 자금모집과 활용내용에 대해서는 홍선표, 2011,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출판부, 239~254쪽 참고.

<sup>24</sup> 주미외교위원부 설치를 두고 연합회와 이승만·동지회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제3자적 입장에서 있던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1943년 9월 임시정부 의정원에 외교부 재조직을 건의한 바 있다.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건의 내용은 주미외교부의 문제는 지도력 부재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인물을 미주지역에 파견하여 외교부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만길, 1992, 「조선민족혁명당과 미주 『독립』 신문」, 『역사비평』 19, 329쪽.

<sup>25</sup> 『독립』 1944년 4월 13일 「연합회 제3차대회-워싱턴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sup>26</sup> 『신한민보』 1944년 4월 13일 「결의안」

<sup>27</sup> 『독립』 1944년 4월 13일 「학생회 탈퇴 이유」

<sup>28</sup> 『독립』 1944년 4월 12일; 1944년 4월 13일 「한족연합회 제3차 전체대회 전말」

몇 달 후, 다시 임시정부의 외교위원회 개조안 발표에 의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표회의가 열렸다. 이 미주전체 대표회의는 1944년 10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인국민총회관에서 개최되었고 동지회와 대한인부인회를 제외한 총 13개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민혁당 미주지부도 그 중 하나였다.

민혁당 미주지부는 이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주장했다. 그것은 ① 외교 운동 분규 해결, ② 연합회 재조직, ③ 군사운동을 밀고 나갈 것<sup>29</sup>, ④ 통일연합회 강화, ⑤ 재정정책 문제 해결, ⑥ 민간 단체와 외교위원부의 분리 등이었다.<sup>30</sup> 지금까지 연합회에 민혁당 미주지부가 건의하고 주장한 내용들인 ‘군사운동 강화’, ‘재정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합회의 사업과 역할을 비판하는 사항들도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표회의 끝에 연합회는 외교위원 15명을 선출하여 임시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동지회가 불참했다는 이유로 대표대회에서 인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새로 9명의 외교위원을 선정·임명했다. 이렇게 임시정부와 연합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연합회보다 이승만·동지회의 편을 들어주자 연합회는 임시정부와의 관계도 거의 단절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sup>31</sup>

이렇듯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둘러싼 진행과정에 대해서 민혁당 미주지부가 보기에 이 전체대표회의는 ‘실패’한 것이었다. 당시의 외교노선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정 승인이나 랜드 리스(Lend-lease)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외교활동을 비판하고 구미위원부 재조직도 회의적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짚은 실패원인을 보면 ① 외교부를 민간단체에 떠맡긴 것, ② 국민회와 동지회 사이의 알력 ③ 모호한 임시정부 훈전 ④ 구미위원부 재조직 동기와 목적·원칙의 막연함이라고 들었다. 이 전체대표회의에 민혁당 미주지부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마치 “장님이 캄캄한 방에 앉아서 형적 없는 검정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 눈물 나는 희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sup>32</sup>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회와 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자신들의 의견이 연합회에 반영되지도 못한 채 실망을 안고 탈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리고 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두 파로 분열되는 형국을 맞게 되었다.

## (2)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분열과 해방 직전의 활동

연합회의 워싱턴사무소 설치를 반대하고 민혁당 미주지부는 연합회에서 탈퇴했지만, 이후 연합회 재참여 여부를 두고 두 개의 파로 갈리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분열에는 한길수를 중심으로 한 인물간 갈등도 내재되어 있었다.

<sup>29</sup> 『신한민보』 1944년 11월 16일 「대표회회록」; 1944년 11월 23일 「전체대표회회록」

<sup>30</sup>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7 - 임시정부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426쪽.

<sup>31</sup> 고정휴, 앞의 책, 424쪽.

<sup>32</sup> 『독립』 1944년 11월 22일 「전체대표대회의 실패원인」

본래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인물들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변준호, 김강, 이경선, 신두식, 김혜란, 선우학원 등 초기에 미주지부의 주요인원들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강경파며, 곽림대, 최능익, 장기형 등은 온건파로 볼 수 있다.<sup>33</sup>

먼저 재참여를 주장하는 쪽은 곽림대(郭林大)<sup>34</sup>를 중심으로 한 중도파 인물들이었다.<sup>35</sup> 이들은 분열이 시작된 시기인 1944년 12월 15일에 일찌감치 새로 임원을 선정하였다.<sup>36</sup> 그 임원명단을 보면 회장에 곽림대, 총무에 황성택, 서기에 현철, 선전위원에 한길수, 조직 겸 통신위원에 최능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미한족연합회에 관림대, 황성택, 한길수, 최능익, 장기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sup>37</sup>

참여를 반대하는 쪽은 원간부 쪽인 변준호, 김강 측이었다. 당시 미주지부 위원장이었던 변준호를 중심으로 한 반대측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연합회에 참여하는 것은 항일연합전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한길수가 미주지부에 참여하는 것도 마땅치 않게 보았다. 이들은 1945년 1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하여 신두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sup>38</sup> 그리고 중경의 민족혁명당 본부에 이 사건에 대해 보고했으며, 본부에서 회답이 올 때까지 총선거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두 개의 집행부로 갈리게 된 입장 차이는 임시정부 지지여부에 대한 태도 차이에 기인하고 있었다. 변준호 측의 참여반대론자들은 임시정부 중심의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고, 임시정부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외교활동 및 독립운동을 진행하려는 연합회에서 탈퇴하려고 했다. 반면 곽림대, 최능익, 현철, 황성택 등은 반임시정부 입장이 강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미외교위원회 개조를 두고 반임정으로 돌아선 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이었다.

1945년 3월에 열린 중경의 중앙집행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변준호 중심의 연합회 참여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합위원회 참여 반대론을 당의 정책과 결정에 충실한 노선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곽림대 및 최능익 등의 연합회 참여론자들에게는 ‘당의 정책과 훈령을 반대하여 행동하였고, 당내에 분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소를 명하였다.<sup>39</sup>

<sup>33</sup> Eun Sik Yang, *Korean Revolutionary Nationalism in America: Kim Kang and the Student Circle, 1938-1956*,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15

<sup>34</sup> 곽림대는 1930년대 변준호와 함께 중국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조선의용대후원회에도 참여했다. 그는 민혁명 미주지부 내에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을 비판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sup>35</sup> 『독립』 1944년 12월 27일, 「분열주장에 대한 설명」

<sup>36</sup> 『독립』 1944년 12월 20일, 「민혁 미주총지부 분열 진상」

<sup>37</sup> 『독립』 1944년 12월 20일 「집회소식」

<sup>38</sup> 강만길, 앞의 책, 316~17쪽 ; 『독립』 1945년 1월 10일 「집회소식」

<sup>39</sup> 『독립』 1945년 4월 4일 「민족혁명당 총지부 분열 후문」

그러나 꺾림대를 중심으로 한 참여론자들은 한길수를 옹호하고 연합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sup>40</sup> 이들은 아예 중경 당 본부와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명칭으로 연합회와 함께 행동했다.<sup>41</sup>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이름으로 법인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이었다. 즉 분열이 시작될 즈음인 1944년 12월에 꺾림대 일파는 미국 정부에 법인 인가를 신청했고 1945년 1월 12일에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했는데,<sup>42</sup> 이것을 들어 단체의 자격과 권한이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분열의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묻는 본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미주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이름은 자신들만 권한을 가진 명칭이라고 독점하고 나섰다.<sup>43</sup>

중경 민족혁명당이 지지하고 인정한 연합회 참여 반대 측은 오히려 이후 당 내에서 활동이 줄어들었다. 신문 『독립』의 운영에 여전히 두 파의 인물들이 공동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미주지부 내의 활동은 이전만큼 적극적이지 못했다.<sup>44</sup> 대신 변준호, 김강, 선우학원 등은 미국 OSS의 한반도 침투 작전(냅코작전; Napko Project)<sup>45</sup>에 참여하거나 미군에 입대하여 그들만의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sup>46</sup>

분열의 홍역을 겪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민혁명 미주지부는 꺾림대를 중심으로 하여 연합회에 다시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1945년 1월 6일부터 연합

<sup>40</sup> 꺾림대는 한길수를 지지하고 그의 외교활동을 후원하는 인물이었다. (꺾림대, 1973, 『못 있어 화려강산』, 대성문화사) 한편 한길수는 독자적으로 『독립』에 글을 기고하여 자신을 둘러싼 내용들과 소문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했다. 『독립』 1945년 1월 10일 「한길수는 과연 거짓말쟁인가」

한길수는 이후 민혁명 미주지부의 일원으로 더욱 활발히 활동했으며, 1945년 8월에는 워싱턴 주재 미주지부 대표로 임명되기도 했다. 『독립』 1945년 8월 8일 「재미조선민족혁명당」

<sup>41</sup> 『독립』 1945년 4월 4일, 1945년 4월 11일 「민족혁명당 총지부 분열 후문」

<sup>42</sup> 『독립』 1945년 2월 7일 「공포문」

<sup>43</sup> 『독립』 1945년 4월 11일 「민족혁명당 분열 후문」

<sup>44</sup> Eun Sik Yang, *Korean Revolutionary Nationalism in America: Kim Kang and the Student Circle, 1938-1956*,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19

<sup>45</sup> OSS의 냅코작전에 대해서는 방선주, 1993, 「미주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특성(OSS NAPKO)」,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정병준, 2001, 「해제: 태평양전쟁기 재미한인의 독립운동과 미 전략첩보국의 냅코계획」, 『NAPKO Project of OSS: 재미한인들의 조국정진계획』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24, 미주편 6), 국가보훈처 참고

<sup>46</sup> 변준호와 김강 등이 OSS의 작전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병준은 민족혁명당 미주지부가 1944년 분열 후 반임정계 인사들이 당을 장악했고 親임정과들이 오갈 곳이 없어졌는데 이때 OSS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준, 2003, 「박순동의 항일투쟁과 미 전략첩보국(OSS)의 한반도 침투작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251~252쪽.) 선우학원의 회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재미 한인사회의 동향과 인물들을 주시해오고 있었고 군사작전에 한인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오고 있었다. (선우학원, 1994, 『아리랑 그 슬픈 가락이여』, 대흥기획, 64~81쪽; 최기영, 2004, 「1930~40년대 미주 기독교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와 역사』 20, 51~52쪽.

회 강화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군자금 모집 위원 선정에 관여하는 등 연합회에서 군자금 모집과 군무부 지원 등의 결정사항에 참여했다. 각 지방순행, 샌프란시스코 회의 대비, 구제부 설치 등의 사항 결정에도 참여했다. 황성택, 최능익 등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일원들은 각 분과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sup>47</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민족혁명당 미주지부가 독자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군사촉진위원회가 담당하는 ‘군사운동비 모집’은 『독립』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분열이 시작된 이후 1945년 2월 28일의 모집 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듯 하다. 이것은 연합회의 군자금 모집활동으로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독자적인 모집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한 원인일 것이고, 내부 분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反임정파가 민혁명당 미주지부의 세력을 잡은만큼, 중경으로 후원비를 보내는 활동에 소홀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해방직전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가장 큰 활동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했고 연합회에서 활동 중인 민혁명당 미주지부에서도 역시 큰 관심을 보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중경 임시정부는 주미외교위원회 개조 문제로 거의 단절 상태에 있었기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앞두고 외교활동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이승만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미외교위원회와 연합회의 워싱턴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승만의 주미외교위원회나 연합회의 해외한족대표단이나 대회 참가권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독립』의 기자 신분으로 박상엽과 한길수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한편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개최될 때 이승만은 미국과 영국이 알타 회담에서 한국을 소련의 세력권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알타 밀약설’을 주장했다. 『독립』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경과와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면서 이승만의 알타밀약설에 대해서도 전했다. 알타밀약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이 오히려 독립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반대 측의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위원장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떠들어댄 덕분에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조선문제는 카이로 선언대로 하려는 정책은 변함없다는 그만한 표시를 듣게 된 것이다.”라는 다소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sup>48</sup>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경 민족혁명당 본부와 관계를 단절한 후 민혁명당 미주지부는 연합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연합회 활동을 『독립』을 통해 보고하고 세계정세와 해방 후 이상국가의 지향을 전달했다. 여전히 그들만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sup>47</sup> 『독립』 1945년 1월 10일 「연합회 강화대회」; 1945년 3월 14일 「재미한족연합회 집행부 결의사항」; 『신한민보』 1945년 3월 29일 「五씨의 지방순행회환」

<sup>48</sup> 『독립』 1945년 7월 25일 「상항대회에 관한 임시정부 대표단의 보고」 나아가 이 기사에서는 송자문과 러시아의 ‘양해’에 대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도 있다.

의지와 선전은 그치지 않았지만 분열 전 강경한 태도는 다소 수그러진 듯해 보였다.

#### 4. 맺음말

1940년대 태평양전쟁기 미주한인사회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했지만 단체와 인물간 노선 갈등과 입장 차이로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갈래 중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는 동지회·국민회 계열과 확연히 구분되는 진보적 단체로 외교운동보다 군사운동을 강조하고 제3의 노선과 방략을 취했다.

중경 민족혁명당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가 재미한인사회 내에서 주장한 기본적인 사항은 군사운동의 강화와 무장항쟁노선, 임정 중심의 통일전선, 한인사회의 결집과 연대였다. 보수적인 재미한인 사회에서 독자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을 띤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가 내건 이런 주장은 한인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재미 한인단체의 최대연합단체인 연합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런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주장과 영향력이 미주 한인사회에 어떻게 미쳤는지를 알게 한다.

그러나 미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가 되었지만 재미한인사회 내부의 분열과 대립 속에서 스스로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다소 취약한 기반과 내부 갈등을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대립적이었던 재미한인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1940년대 초 재미한인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한길수가 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활동과 분열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정작 한길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재미한인사회의 다른 주요 인물·단체들과 민족혁명당 미주지부의 인물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단체의 활동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후에는 주요 관련 인물들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여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재미한인사회의 진보적 활동과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 『독립』, 『신한민보』
- 곽립대, 1973, 『못 잊어 화려강산』, 대성문화사
- 선우학원, 1994, 『아리랑 그 슬픈 가락이여』, 대흥기획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7 - 임시정부사자료집』
- 강만길, 1992, 「조선민족혁명당과 미주 『독립』신문」, 『역사비평』 19
- 강만길, 2003, 『증보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 고정휴, 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 고정휴, 2009,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고정휴, 2009, 「1930년대 미주에서의 한인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배경과 초기 특징에 대한 고찰-시카고의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 김원용 저, 손보기 역, 2004, 『재미한인50년사』, 혜안
- 박종연, 2012, 「재미한인 황사용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 방선주, 1989,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방선주, 1993, 「미주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특성(OSS NAPKO)」,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 선우학원·노길남·윤길상, 2009, 『미주동포 민족운동 100년사』, 일월서각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2003,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혜안
- 윤종문, 2013, 「항일투쟁기 곽립대의 재미독립운동」, 『역사연구』 24
- 정병준, 2001, 「해제: 태평양전쟁기 재미한인의 독립운동과 미 전략첩보국의 냅코계획」, 『NAPKO Project of OSS : 재미한인들의 조국정진계획』(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24, 미주편 6), 국가보훈처
- 정병준, 2003, 「박순동의 항일투쟁과 미 전략첩보국(OSS)의 한반도 침투작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 최기영, 1999, 「조선의용대와 미주한인사회-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1
- 최기영, 2004, 「1930~40년대 미주 기독교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와 역사』 20
- 홍선표, 2011,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출판부
- Eun Sik Yang, *Korean Revolutionary Nationalism in America: Kim Kang and the Student Circle, 1938-1956*,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